

## 프로야구 휴식 끝, 훈련 시작!

### 8개 구단 본격적인 동계훈련 돌입

“휴식 끝, 훈련 시작”  
국내 프로야구 8개 구단이 달콤한 겨울 휴가를 끌고 올 시즌을 대비한 본격적인 단기집계에 들어간다.

5일부터 올 시즌 한국시리즈 진출을 꿈꾸는 KIA를 시작으로 삼성(6일), 롯데, 한화, LG(이상 8일) 등 8개 구단이 일제

히 동계 훈련을 시작한다.

8개 구단 모두 이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해외 스프링캠프에 대비, 짧게는 1주일에 서 길게는 3주일 정도 국내에서 워밍업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2006시즌 부진했던 LG, SK 등이 대대적인 체질 개선으로 구단별

전력이 비슷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각 팀 코칭스태프들은 한해 농사를 결정짓는 동계훈련과 스프링캠프에 그 어느 보다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동계훈련을 맞이하는 선수들의 자세도 코칭스태프와 별반 다르지 않다.

올 시즌 1군행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스프링캠프에 앞서 실시되는 동계훈련은 스프링 캠프행 비행기를 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이다.

선수들은 동계훈련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2007시즌에 대한 꿈도 접어야 한다.

가장 먼저 훈련 스타트를 끊은 KIA의 경우도 벌써부터 비장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서정환 KIA 감독이 최근 신년 출사표에서 선수단 70명 중 42~43명만 일본 미야자키 스프링캠프에 데려가겠다고 선언했다. 서 감독은 동계훈련 기간동안 뒤쳐지는 선수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참가자 명단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암포성 발언도 내놨다.

다른 구단의 분위기도 KIA와 비슷하다. 구단 재정이나 훈련 효율성 등을 볼 때 선수 전원을 해외 전지 훈련에 참가시키기엔 다소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팀 동료와의 내부경쟁에서 살아 남는 게 급선무다. 그래야만 2007 시즌 자신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새끼호랑이들 화이팅 4일 프로야구 KIA구단 사무실에서 열린 2007년도 신인선수 입단식에서 ‘새끼 호랑이’ 10인방이 올 시즌 활약을 다짐하는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인철, 조동현, 박윤식, 김주현, 권운민, 오준형, 양현종, 김연훈, 이호신, 성민규(사진 원쪽 윗줄부터 시계방향).

/워너기자 jrwi@kwangju.co.kr

## 프로야구 12월엔 팀훈련 않기로

### 8개 구단 감독 합의

프로야구 8개 구단 감독들이 비활동기간(12월~1월) 중 12월 한달에 한해 앞으로 팀 훈련을 치르지 않기로 합의했다.

8개 구단 감독들은 4일 서울 도곡동 야구 회관에서 신상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마련한 신년 간담회에 참석, 12월 한달 간 선수들에게 진정한 자율 훈련을 보장하

기로 뜻을 모았다.

단, 재활이 필요한 선수가 훈련을 요청할 경우 유니폼 대신 일반 트레이닝복을 입히고 코치의 지도 아래 훈련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그동안 프로야구선수협회는 선수들도 휴식이 필요하다며 각 구단에 비활동 기간 팀 훈련 전면 금지를 강력히 요청해왔다. 각 팀도 선수협회의 뜻을 존중, 이 기간 강압적인 합숙훈련을 치르지는 않았지만 팀 훈련을

벌여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날 8개 구단 감독이 12월에 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앞으로 연말에 팀 유니폼을 입고 단체 훈련을 하는 모습을 구경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해년 들어 처음 만난 신 총재와 8개 구단 감독들은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야구 인기 부활과 400만 관중 돌파를 동시에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KBO는 간담회에서 8개 구단 사령탑에게 지난해 12월22일 규칙위원회에서 정한 새로운 미운드 높이와 스트라이크존, 공인구 규격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단 5분을 뛰더라도  
최선 다하겠습니다”

### ■ 박지성 흑피 통해 팬들에 인사

“재활훈련 말이죠? 너무 힘들었죠. 덕분에 몸 상태는 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파워 엔진’ 박지성(26)이 4일(한국시간) 포털 사이트 애후 코리아 운영하는 자신의 홈페이지(sports.yahoo.co.kr/jspark)를 통해 새해 인사를 전했다.

박지성은 “3개월동안 기다리며 건강하게 돌아오라고 격려해준 팬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경기에 열마리씩 뛰게 될지 모르지만 단 5분 경기장에 있다라도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재활훈련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 재미도 없고 했던 걸 계속 반복해야 했다. 모든 선수들이 싫어하는 일”이라며 “1kg 가량 줄었는데 이 쉽지 않아 몸짱으로는 돌아오지 못했다. 하지만 몸 상태는 더 좋았습니다”고 했다. 박지성은 이제 후배들이 많이 생겼지만 잘챙겨주길 못한다고 “(왕)파당하는 것 같다. 앞으로는 (성격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낭담도 했다.

후배 태극전사 조원희, 정조국, 백지훈, 이호 등과 친하다는 그는 정경호, 김남일, 안효연 등과 자주 통화한다고 근황을 전했다.

프리미어리그에 한국 선수들이 많아지면 그들과 경쟁해야 하지만 한국축구로 봤을 땐 좋은 일이라고 했다.

박지성은 “주로 혼자 시간을 보내는데 팬들이 책 선물을 많이 보내줘 선반 네 개를 꽉 채웠다”며 “맨유에선 파트리스 에브라, 루이 사야, 에드溫 판데르사르와 친하다. 여가 시간 에브라와 게임(워킹)을 종종 하는데 에브라가 인터뷰에선 날 이긴다고 하지만 실제론 페널티킥 골 먹고 딱 한 번 졌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4일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LIG-상무전에서 LIG 손석범(7번)이 상무 이동훈, 김도형의 블로킹을 향해 강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 김연아 허리 부상 일본론들 큰 관심

일본 언론들이 ‘피겨여왕’ 김연아(17·군포 수리고)의 허리부상 소식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4일 일본 스포츠신문들은 일제히 ‘김연아, 세계선수권 불참?’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허리통증으로 국내 종합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수 없어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이 미묘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닛칸스포츠는 “김연아가 지난해 그랑프리 파이널에 출전했을 때부터 느꼈던 허리부상으로 3~4주 치료가 필요하게 됐다”며 “3월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이 걸려 있는 국내 종합선수권대회에 빠질 경우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이 불투명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스포츠 닛폰은 “3~4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선수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부상”이라며 “국내 종합선수권대회에 출전하지 않을 경우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놓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 같다”고 보도했다.

### 원터스 맹활약…3대1 승

프로배구 LIG 그레이터스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서 아마추어 조정팀 상무를 제압했다.

LIG는 4일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힐스테이트 2006~2007 V-리그’에서 캐나다 출신 용병 프레디 원터스(19득점)를 앞세워 장광균과 이병주와 좌우 강타로 추격했고 22-23에서 이병주와 엄경섭의 스파이크로 내리 3득점해 이번 시즌에서 처음으로 한 세트를 따냈다.

LIG는 1세트 초반 상무의 빠른 공격에 고전하며 시스템을 벌이다 11-11 동점에서

손석범의 강타와 하현웅의 속공, 블로킹으로 연속 5득점해 16-11로 앞서 손쉽게 기선을 잡았다.

2세트에는 원터스의 강타가 터지고 센터 용병이 블로킹에서 위력을 발휘했지만 상무의 추격의지를 꺾은 뒤 24-20에서 흥식 민이 스파이크를 내리꽂아 승부를 마무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LIG, 패기의 상무 제압

반까지 팽팽한 승부가 이어졌다.

그러나 21-21 동점에서 원터스의 후위공격과 상무의 범실을 뛰어 23-21로 앞서 승기를 잡은 뒤 24-23에서 상무 이동훈의 스파이크가 라인을 벗어나면서 세트스코어 2-0을 만들었다.

군인 정신으로 무장한 상무의 반격도 날카로웠다.

상무는 3세트 12-12에서 공격 범실로 연속 3점을 내준 뒤 줄곧 끌려가다 막판 장광균과 이병주의 좌우 강타로 추격했고 22-23에서 이병주와 엄경섭의 스파이크로 내리 3득점해 이번 시즌에서 처음으로 한 세트를 따냈다.

일격을 당한 LIG는 4세트 5-6에서 손석범의 스파이크와 방신봉의 블로킹 등으로 7점을 몰아쳐 12-6으로 역전했고 16-14에서 하현웅의 속공과 원터스의 연속 블로킹으로 상무의 추격의지를 꺾은 뒤 24-20에서 흥식 민이 스파이크를 내리꽂아 승부를 마무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